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학습세례식 8월 17일, 성찬식 8월 31일

97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

8월 3일, 10일(주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금년 들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이 오는 8월 17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과 오는 8월 31일 주일 1-4부 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1997년부터 학습, 세례식 일정이 다소 바뀐에 따라 학습, 세례자는 물론 주위에서 권하는 교구일꾼 및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교육 및 문답은 2주 전부터 2주일에 걸쳐 주일 오후 3시~4시 50분까지 실시되며, 좀더 내실 있는 교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답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내용도 세례자와 학습자에게 맞추어 세례반과 학습반을 분리하며 학습반은 '기독교개요', '성경개요', '구원론'을, 세례반은 '세례란', '교회론', '구원론'을 세 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되며 유아세례반은 '유아세례란' 과목을 한 시간만 듣고 서약하면 된다. 따라서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

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부터 이처럼 세례식을 금요일에서 주일로 바꿈에 따라 우선 세례받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세례식을 온 교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축하와 격려 속에서 당회장 목사의 집례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 입회하는 세례자들에게나 이를 지켜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 학습, 세례식(2월 16일, 5월 18일, 8월 17일, 11월 16일)과 성찬식(2월 23일, 5월 25일, 8월 31일, 11월 23일)을 갖게 되는데 이에 참여할 성도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금년도 마지막 학습세례식은 11월 16일에 있게 된다.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3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8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이번 3차 학습세례식을 준비하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사람들은 별표의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번 1, 2차 때에 이처럼 변경된 사항들을 잘 몰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변경된 이 방식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하겠다. 학습, 세례 받을 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격

- 1) 학습 : 만 14세 이상(1983년 8월생까지)이 되고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성도
- 2) 세례 : 본교회 학습교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성도
- 3) 유아세례 : 본교회에 등록된 만 2세(24개월)까지의 아기로 부모 중 한편이 세례교인인 경우
- 4) 개종 :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성도로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성도

◀ 지난 2차 세례식 모습

5) 입교 :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1983년 8월생까지)이 된 성도

2.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습 및 세례식은 찬양예배시에 당회장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다.

성찬 준비위원 교육

1997년 8월 3일(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성찬준비위원 교육이 배다나홀에서 열린다.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즙과 떡을 만들며 성찬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성찬위원들이 보다 바른 내적 자세와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강사는 예배위원회 지도인 현상민 목사이다.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점점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에서는 단정한 차림으로 제 달자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7월 27일 : 6교구
1997년 8월 3일 : 7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사무장로 / 교역자 / 연수집사 / 원로, 은퇴, 사무관사 / 남녀 세리집사

97년도 전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 8월 31일까지
- 시간 : 10:00~14:00, 15:00~16:00
- 장소 : 선교관 404호
- 대상 : 당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소속 기관
- 준비물 : ① 원장 ② 중빙서류 ③ 횡장 ④ 직인표 ⑤ 금전출납부
- 문의 : 감사위원회실 (교화 354)

97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
성적표 제출 바랍니다

1997년도 1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은 8월 3일(주일)까지 1학기 성적표를 교육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2학기 장학금 지급 심사를 위한 것이기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2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심판을 받게 된 선민의 죄(1)

(이사야 3:8-26)

1. 오만한 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스럽게 살던 유다의 선민이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까. 8-12절까지의 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만한 죄값으로 망했다고 하겠습니다.

(1) 오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오만이란 말은 교만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만은 자기에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이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뽐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으면서 안하무인으로 천지에서 제가 제일 잘났다는 것이 오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뽐내는 데 앞장서는 오만한 사람이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멸시하려고 달려드는 오만한 자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멸망입니다.

(2) 오만한 자의 방자한 행위가 어떠합니까

① 하나님의 눈을 찔렀습니다.
선민 유다가 오만해지니까 그 언행이 마치 가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찔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시로 잠자는 호랑이의 눈을 찔렀다면 편안하겠습니까. 같기같이 찔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감히 하나님의 눈을 찔른 사람이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② 안색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찔르고도 그 안색에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지만 아무 장로, 아무 목사의 꼴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거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찔르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면서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라고 하였으니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의 안색이 어느 정도로 뻔뻔한 절면피입니까. 본문에서는 ‘소돔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음란해졌고 강포가 가득해졌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를 밟아 주고 주먹으로 출세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찔르고도 가책을 모르는 절면피한 행동입니다.

(3)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만한 자는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할 때가 왔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이 매를 맞아 보면 영혼은 사는 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성도가 죄를 범하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징계의 채찍을 들어 육신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안 되고 몸에 병이 나는데, 그제서야 “아이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려고 육신을 때리시는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버리시는 때는 희망이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말로써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유다 백성이 오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찔르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양심에는 가책이 없고 뻔뻔스럽게 강포와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찔른 사람들이 영혼에 화를 받고 육신이 망할 때에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던 자들은 그때에 해와 같이 빛나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죽정인들이 다 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발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불에 던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정이가 불에 던짐을 받는 시간에 알곡은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불붙어 망해도 의인은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모두 멸망을 받아도 의인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자기가 망할 때에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망하면 모르겠으나 자기가 망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힙니다.

2. 지도자의 죄

(1)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까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요, ‘방백’은 나라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을 감히 어느 백성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그저 속으로만 미워합니다. ‘어느 장관이 하는 것을 보라구! 저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판이야’ 이렇게 속으로는 미워해도 백성은 권력이 없고 그들은 면책특권이 있으니

유다 백성이 오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양심에는 가책이 없고 뻔뻔스럽게 강포와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저주하십니다.



까 잡아 가둘 수도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장로님 가운데 혹 잘못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교인들은 뒤에서 ‘장로가 뭐 저래?’ 그러거나 했지 처리를 못합니다. 이럴 때에 누가 처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셔서 교회 장로들의 죄와 세상 권력을 잡은 방백들의 죄를 국문(논고)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죄상을 다 아시니까 인간이 고소하거나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백성에게 ‘너의 힘으로 장로와 방백을 처리해 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나 교인 중에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목사, 장로를 고소할 자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논고하는 검사가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되셔서 못된 짓을 하던 장로와 방백들을 다 처리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2) 지도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장로와 방백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검사와 판사가 되셔서 직접 처리해 주십니까. 장로들은 교회를 망치고 방백들은 나라를 망치는 죄를 범합니다. 세력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못된 짓을 하려니까 가난한 백성의 등가죽을 벗기고 주머니를 털어 갑니다. 가난뱅이의 얼굴에다가 땀을 흘리게 대니까 코가 다 잘려 나가고 입술이 깨지고 눈이 빠져 나갑니다. 얼마나 지독한 말입니까. ‘나라는 정권잡은 위정자들이 망치고 있고 교회는 장로, 목사들이 망치고 있으니 내가 이 지도자들을 다 처리할 날이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총현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신을 차려서 꿈에도 이런 무리 가운데 섞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변론하러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검사의 책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였

도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백과 장로들을 심판하려고 앉아 계시지 않고 서시었다는 말입니다. ‘서시도다’란 당장 처치하시려는 자세입니다. “○○○에게 사형을 언도하노라” 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망치를 두드리려고 썼다는 말씀이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3. 부녀자들의 죄

(1) 부녀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하시며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23절에 보면 여자들의 사치한 장신구가 21가지나 나옵니다.

① 교만했습니다.

턱을 올리고 목을 꼳꼳하게 세우고 뽐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녀자들이 무엇으로 교만하여 목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남편이 도적질하여 갖다 준 돈으로 교만합니다.

② 음탕하였습니다.

잘 생긴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눈을 깜빡거리며 윙크를 하며 눈짓을 합니다. 걸음을 걸어도 교태를 부리면서 걷습니다. 방울소리를 내며 걷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신의 뒤축이나 앞코에 비싼 돈을 주고 방울을 달아 걸을 때마다 방울소리가 쟁쟁 나게 했습니다. 이것도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

③ 사치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의 사치를 위해 쓰여진 값비싼 장신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본문에만도 21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무엇으로 마련했겠습니까. 남편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게 도적질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런 피물은 돈을 가지고 여자들이 사치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도적질한 돈으로 집 위에 집을 짓고 땅 위에 땅을 사서 자기 혼자만 억만장자로 살아 보겠다고 나라를 망치고 가난한 백성을 괴롭힙니다. ■

※ 16주 전도훈련을 마치고 나서 ※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의 현장들

김 영 구

(집사, 3교구, 1기 수료생)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전도폭발훈련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두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훈련이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훈련을 받고 싶었지만 갱년기에 접어들어 나 자신의 약해진 기억력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주와 칼을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하루종일 갖느라고 고생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주제를 잊어버리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알기에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암기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두고 며칠간 기도하였습니다. 스스로 싸우면서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강한 용기와 힘을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난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고말고, 기억력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하고말고' 나는 스스로에게 강한 위로를 하며 전도폭발 훈련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섯 분의 훈련자 목사님들로부터 먼저 면접을 받은 다음에 훈련을 받기

로 한 우리 훈련생들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부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기도와 강의와 실습, 그리고 전도현장으로 나가는 일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 주간에 해당하는 암기와 예습, 복습을 하여야 했습니다. 복습 및 암기 숙제를 하는데는 하루에 30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16주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요것쫌이야'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교재를 읽고 암기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훈련은 훈련자 목사님 한 분에 훈련생 2,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숙제 한 것을 목사님께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또 암기한 것을 목사님 앞에서 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서 잘했는데 목사님 앞에 서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수에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는 부끄러움, 실망감으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왜? 왜? 이 바보야. 난 바보야' 나 자신을 질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따뜻한 사람으로 덮어 주시며 위로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잠시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때 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데 나의 머

리와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니 정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확신이 솟아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확신을 갖고 임하자 정말 암기도 잘되고 훈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고 나의 훈련자 목사님은 정말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밝음과 확신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훈련받는 부족한 나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12명의 훈련생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의 시간을 비어놓기 위해서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족과의 여행 약속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상 중요한 일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와 도전을 받고 또 격려와 기도를 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을 받았습니

다.

훈련을 받는 동안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던 것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이름뿐인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훈련을 받은 어떤 집사님이 병환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만 갖고 있었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노방전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접근하여 어떻게 복음을 쉽고도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 훈련을 받게 하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수료식을 마치고 강사 목사님과 수료생들이 함께)



이번에 주관중현에서 찾아간 곳은 2부 찬양대인 임마누엘찬양대이다. 이 찬양대는 '내 삶을 찬양의 산 제사로'라는 표어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라는 주제 성구를 대원들 심비에 새기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임마누엘찬양대는 차선득 정로가 대장이고 장기범 집사가 지휘, 김윤경 집사가 편주를 맡고 있다. 대원수는 소프라노가 82명, 알토가 68명, 테너가 40

※ 부서 탐방 / 임마누엘찬양대 ※

삶을 찬양의 산 제사로 드리는 찬양대

20대에서 50대까지, 지정좌석제 등 많은 노력을

명, 베이스가 42명 총 232명이며, 연령층은 20세부터 55세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는 절묘한 화음이 임마누엘찬양대의 특성

이다. 젊은층은 주로 대학부와 청년1부 회원들이 많다.

이들은 주일 외에 토요일에도 모여 찬양 연습을 한다. 토요일에는 할렐루야홀에서 오후 5시에 모여 6시까지 파트별 연습을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전체 연습을 한다. 그런 후에는 자체 모임 시간을 갖는데 첫째주에는 신입대원 환영 행사를 하고 둘째주에는 생일축하를, 셋째주에는 대원중 누구든지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넷째주에는 쿼츠추첨 및 시상을 한다.

주일에는 나사렛홀에서 아침 7시 50분에 모여 8시까지 QT를 하고 10분간 발성 연습을 한 후 8시 40분까지 전체 연습을 한다. 그런 후에 2부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순서를 담당한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 후 할렐루야홀에서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박경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연습을 한다. 연습이 끝나면 파트별 모임을 갖는다.

임마누엘찬양대는 작년 7월부터 지정 좌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참석하지 않은 대원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매주 찬양대에 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행사로는 부활절 찬양대축제나 불암산 야외예배, 조별 중창경연대회 등이 있었고 출석 우수자 시상이나 여름 찬양 캠프, 작은 음악회 등이 있다.

임마누엘찬양대에 들어오려면 찬양 위원회나 사목국에 서류로 신청하고 4주 동안 찬양대 신입부에서 이들을 예리코로 도와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휘자의 오디션을 받게 되는데 이 오디션을 통과하면 파트가 결정된다. 세례교인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찬양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

대원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성도들이 음악적 질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찬양을 부르는 대원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아울러 교회가 음악을 전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인재들을 발탁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여 찬양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글/ 박주영 기자, 사진/ 이문구 기자)



취재수첩

경찰전도회 경찰청교회 예배 지원

경찰전도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오후 6시 30분 경찰청교회에서 전·의경(자체 경비대)을 대상으로 전도예배를 드렸다. 이인광 집사의 기도와 경찰전도회 여성중창단의 찬양, 김필수 목사의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후 믿지 않는 전·의경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결신의 시간을 가졌다.

경찰전도회에서는 이날 여름철을 어렵게 지내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반바지 240벌을 기증하였다.

장로중창단 결성 은혜로운 찬양 기대

금요집회가 날로 부흥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 장로중창단이 결성되어 지난 7월 19일 금요집회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첫선을 보였다.

손동운, 이훈, 김천재, 차신득, 윤성철, 전홍렬, 이정우, 손철 장로로 구성된 이 장로중창단은 이날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과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을 불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였다.

그동안도 장로중창단 결성에 대한 애기들이 여러 차례 오갔으나 김성관 목사의 찬양 인도에 은혜를 받아 이번 기회에 최소의 인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단원 외에도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로들이 많아 인원을 더욱 보강하여 교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찬양을 담당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로들이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헌신의 본모습을 보여주어 주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더욱 은혜스럽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기대된다.

13교구 군부대 방문 40여명에게 세례

13교구(교구장 박인건 장로, 지도 김필수 목사)는 지난 7월 13일 교구식구 12명이 육군 28사단 80연대를 방문하여 40여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다.

250여명이 참석한 세례식 예배를 통하여 1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

13교구에서는 이 부대에 복사기 1대(167만원 상당, 60만원 군전도회에서 보조)를 기증하기도 했다.

선교수련회 개최

선교에 꿈을 가진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회원들이 모여 선교수련회를 개최한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북평리의 북평교회에서 가질 이 수련회는 선교위원회가 주최하여 실시하게 되고 강사는 선교위원회 지도인 이승림 목사와 정성기 전도사이다.

단기선교를 위한 물품 수집

1. 품목
 - ① 문구류
 - ② 의약품 : 구충제, 비타민, 항생제, 해열진통제, 에비오제, 피부과 각종 연고
 - ③ 의류 : 사계절 성인·유아 의류
 - ④ 여행용 대형 가방
 - ⑤ 기타 생활필수품
 - ⑥ 칫솔 3,000개

2. 접수
 - ① 기간 : 7월 6일~7월 27일
 - ② 장소 : 선교위원회 사무실 (선교관 406호)

제3회 주부교양강좌를 마치고

성향을 이루며 끝난 강좌

이제는 참석했던 불신자에게 관심을 둘 때

제3회 주부교양강좌(6월 5일~26일)가 성황리에 끝나쳐졌다. 예년에 비해 훨씬 열기 띤 모습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된 제3회 주부교양강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96년 4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 평균 287명, 96년 11월의 제2회 때는 하루 평균 325명이었는데 이번 제3회 때는 하루 평균 770명이 참석하여 고무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 인원 3,078명 중 타교회 교인이 456명(44.89%), 불신자가 362명(11.6%), 본교회 교인이 2,260명(73.49%)이 참석했다. 이는 원래 목적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간접 전도의 기회와 우리교회 교인들의 재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면에서도 부합된 것이다. 불신자가 11.6% 왔다는 것은 이런 유의 모임에 불신자 참석률로 볼 때도 평균 이상이 모인 것이고 특히 타교회 교인이 많이 참석한 것도 큰 특징이었다.

둘째로는 대상자들의 필요를 잘 살피고 선정한 주제와 감사였다는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강좌를 계획하며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주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하였다. 따라서 많은 주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는 여전도회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동을 들 수 있다. 여전도회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각 여전도회의 참여를 독려했고 또한 여러 매체(전단지, 라디오, 신문, 현수막, 예배, 교구모임)를 통한 광고가 주부교양강좌를 알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광고하고 홍보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주부교양강좌가 막을 내렸다. 처음 예상을 훨씬 웃도는 많은 참석자를 보며 이 일이 한번의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참석했던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케 하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제3회 주부교양강좌 평가회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전도위원회 전도부 소개

교구별 전도활성화를 돕는 충현전도부

모든 성도들을 전도요원화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전도활동을 할 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현전도대 훈련을 하였다. 그러나 전도활동이 부진하여서 각 교구별로 전도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교구별 전도활동을 선도하여 가도록 하며, 충현전도대원 기도모임을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교육관 109호실에서 하고 있다.

기도모임의 운영은 충현전도대 훈련 이수자 또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자 중에서 헌신된 자들로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가지며 전도활동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그리고 다음 전도활동(전도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는 교구별로 전도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함께 전도한다.

또한 전도하는 지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전도회의 임원들이 전도에 대한 비전과 체험, 그리고 열심을 갖도록 하며, 평신도 훈련자가 되어 다른 전도자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전도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제1기 훈련에 12명이 선정되어 3월 12일에 시작하여 16주 훈련을 받고 7월 2일에

수료식을 하였다. 제2기 훈련은 8월에 훈련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충현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각 교구별 전도실행위원과 전도훈련학교 훈련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

충현전도대:

- 간사 : 이영환, 주순희 집사
- 실행위원 :

1교구-이병영, 2교구-김영달, 문상식, 3교구-고승관, 신재금, 4교구-박홍규, 송경희, 5교구-김달현, 민순기, 6교구-고계승, 이병두, 7교구-박용기, 이진규, 8교구-이장하, 박운선, 9교구-정태두, 정진너, 10교구-박덕양, 11교구-강종목, 12교구-정철길, 13교구-배춘식, 석귀수, 14교구-신상수, 김영숙, 15교구-김태홍, 김선자, 16교구-최미정, 17교구-김광호, 신희순

전도훈련학교 수료자:

김금숙, 김영구, 송경희, 송인복, 강숙희, 장순옥, 조중선, 정진너, 석귀수, 손유미, 신희순, 김영숙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교사모집

- 기간 : 97년 8월 4일~8일
- 자격 : 대학부 및 청년부 회원
- 접수 : 교정전도회(본당 지하)

우리두리 교실 안내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의 사회 참여와 재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8월 5일(화)부터 14일(목)까지 우리두리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일반 중·고등학교생들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지체인들은 충현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 1997. 8. 5(화) ~ 14(목) (09:30 - 12:30)
2. 장소 : 충현복지관 지하 3층
3. 모집인원 : 40명(특수학교 중·고등부 20명, 일반 중·고등학생 20명)
4. 접수기간 : 1997. 8. 3(주일)까지 (선착순 접수마감)
5. 접수 및 문의 : 충현복지관 지역사회재활과(전화 564-4885, 562-0548 담당 : 이상진)